

○○○○○○○○○금후 10년간에 채란계는 어떻게

개량될 것인가? ○○○○○○○○○○

<편 집 부>

미국의 우수한 유전학자의 한사람으로 저명한 슈넬트라 박사(미조리 및 아이오아 대학 졸업. 미국종제 협회장)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채란계의 금후의 개량방향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미국 육종 업체를 대표한 의견으로써 꼭 관심있는 발언으로 사료되는 바 여기 소개한다.

1) 미국의 육종가들이 금후보다 힘을 기울여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점들인가?

이제부터는 점점 대군 사육이 진보되고 결과적으로는 사육부터 제란처리까지가 자동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이러한 동향에 전될 수 있도록 난각(卵殼)의 강화가 요망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육종가도 이점에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은 다른 부문보다도 시급히 개량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2) 금후의 산란율의 향상은 어느 정도로 기대되는가?

채란업도 일종의 식품산업인한 다른 어떤 식품 산업에 뒤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산란율 개량은 앞으로 계속되는 불가분의 사명으로서 육종가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나는 금후 10년간에 1수당 10~15개의 산란증가는 유전학적으로 보아 그다지 곤란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증가를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 하느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헨 하우스로 1수당 248개를 현재의 평균으로 보고 하는 말이다. 물론 사육 방법의 개악(改惡)이 있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었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3) 금후 10년간에 닭의 체중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만일 앞으로 10년간에 어떤 난종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다면 이 질문에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지방, 또는 어떤 나라에선 대란이나 특란을 원하고 또 어떤곳에서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일생동안 똑같은 난종의 알을 한마리의 닭에 낳게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산 효율 부터 생각할때 양계인은 보다 생산비는 낮게, 제란가격은 높게 팔리는 알을 찾는다.

이런 사태는 특란 같은 규격의 극단을 찾는 경향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육종학적으로 단지 난중을 무겁게한다는것은 간단하다. 문제는 산란개수가 기타 능력을 희생하고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체중은 난중과 개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절충되어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육종가들은 이러한 개량의 주안을 결정짓는데 있어서도 앞으로는 단지 생산분야의 요구 뿐만 아니라 제란처리 부문 내지는 오차 가공부문의 요망까지를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산업에 봉사할 수 있는 품종 개량의 노력에 봉착 할 것이다.

4) 미니 레이어(mini layer)의 장래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미니 레이어가 충분한 난중을 생산할 수만 있게 된다면 이들은 채란업계의 확고한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같고 전술한 바와같이 난중과 업계의 동향을 감안 할때 그리 간단한 결론부터 내리기는 어렵다.

5) 마렉씨병이 일응 해결된 것으로 보고 금후의 형병성 개량의 주안점은 어디다 둘 것인가?

임파성 백혈병이 당면한 적으로 되고 머지 않아 정복될 것이다. 물론 아세아형 뉴켓슬병에 대하여도 우리가 할일은 많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마렉씨병에 대한 혈액 개량에 있어 어느 정도 다른 중요한 개량요소를 희생하여 왔지만 이제 부터는 이런 것들이 보탬이되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료효율이란 유전적 요소의 하나인가?

그렇다. 바꾸어 말하자면 1l의 개소린으로 닭이라는 자동차가 몇km 많이 쫓 수 있는가 경주하는 것과 같아서 체중, 산란개수, 난중등 모두가 사료효율과 유전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또 이 세가지의 요소를 도와서 하드라도 닭은 그 계통 마다 사료를 효과적으로 성취 활용하는 능력은 각기 다른 것이다. 따라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들의 육종노력은 물론 계속되어질 것이다.

7) 채란업계에 있어서 부화장의 급후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업계를 위해서나 업계의 효율향상등을 논할때에는 항상 채란계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부화장을 포함해서 생각해왔다.

부화장에 있어서는 P.S로부터 보다 많은 알병아리를 생산해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종올란 생산하여 90~95% 라는 좋은 부화율을 나타내어야만 한다.

미국에 있어서는 종계수수는 감소되고 실용계수수는 증가되고 있다. 즉 종계의 생산효율은 많이 개량되고 있다.

8) 육종가에게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들에게 최대의 문제는 여러가지의 능력 개량 목표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중점 배분을 하여 어떠한 능력 밸런스 보존의 형태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까지 말한 외에 생존율 성질개량, 난각색 기타 여러가지의 개량점이 포함된다. 즉 항상 업계의 동향에 눈을 돌리고 요구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이들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묶어서 보다 경제성이 높은 닭을 만들어 내어 놓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며 또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무료로 병리, 해부  
검사해 드립니다.

- ◎ 첨가제
- ◎ 예방약
- ◎ 치료약
- ◎ 백신
- ◎ 소독약

최신의 학술로 친절  
히 상담해 드리는

專門獸醫師 鄭 洙 植  
專門獸醫師 李 角 模

(한국육계회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58  
TEL. 96-8780

# 청량리가축약품센터

